

번역 평가의 실제*

김 정 우
(경남대)

1. 머리말

본고는 번역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의 성취도를 평가하는 실제적인 기준과 방안을 제시하는 동시에, 그와 같은 평가의 결과에 입각하여 번역 교육에서 주안점을 두어야 하는 내용에 대한 논의를 목적으로 구상되었다.

번역의 완성도를 높이려면, 실로 다양하고 복합적인 능력이 번역 과정의 여러 단계에서 적절하게 구사되어야 한다. 번역가가 갖추어야 할 다양한 능력에는 언어 능력과 아울러 콘텐츠를 이해하는 지적 능력 등이 포함된다. 이 가운데서 가장 기본이 되는 능력은 무엇보다 언어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¹⁾ 언어 능

* 이 논문은 2004년도 경남대학교 학술논문 게재연구비 지원으로 작성되었다.

1) 이런 맥락에서 특정한 전문 분야의 번역은 해당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가 번역 능력을 연마하여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시 말해서 전문 번역가가 특정 분야의 전문 지식을 습득하여 그 분야의 텍스트를 번역하는 것보다,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번

력은 다시 원천언어(외국어)를 읽고 이해하는 독해 능력과 독해한 내용을 목표 언어(모국어)로 다시 쓸 수 있는 표현 능력으로 구분된다.

그런데 한 사람의 번역가에게 내재된 이 언어 능력은 어떤 시점에서 완성된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경지를 향해 끊임없이 진화하는 진행 상태로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의미에서 언어 능력의 함양과 발달은 번역 교육에서 최우선적으로 염두에 두어야 할 명제로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 현실적으로 필요한 전제 조건은 번역을 학습하는 예비 번역가(번역학도)의 언어 능력에 대한 정확한 진단 내지 평가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취지 하에 본고에서는 번역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작성한 구체적인 번역문을 자료로, 이를 평가한 다음에, 평가의 결과를 번역 교육 과정의 내용으로 활용하는 피드백 방안을 모색해 보려는 것이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주제를 밝힌다. 제2장에서는 평가 자료를 수집한 과정과 평가의 기준 및 과제로 제시했던 원문 텍스트를 소개한다. 제3장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게 되는데, 크게 독해와 표현 분야로 나누어서 논의한 다음에 독해와 표현 및 전체 번역 성공률 사이의 상관 관계를 알아보게 된다. 제4장에서는 앞에서 논의된 분석 결과를 번역 교육 현장으로 흡수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역시 독해와 표현 측면으로 나누어서 알아보게 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앞에서 이루어진 논의를 요약하고, 향후의 과제를 전망하면서 논의를 끝맺게 된다.

2. 평가 절차 개요

2.1 평가 자료 수집

분석 대상 자료는 필자가 인터넷 강좌로 운영중인 번역 과목에서 학생들이 제출한 번역 결과물이다.²⁾ 이 과목은 교양 강좌로 개설되었으므로, 수강 학생

²⁾ 역 능력을 습득하여 그 분야의 텍스트를 번역하는 것이 번역의 완성도라는 측면에서 훨씬 효과적이라는 뜻이다.

들의 전공 배경도 어문 계열이 조금 많지만 사회 계열과 공학 계열 등 다양한 전공이 대체로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표본 집단의 크기(수강 인원)는 원래 2개교 80명이었는데, 통계 처리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상위 집단과 하위 집단을 버리고 점수대가 중간에 속하는 40명의 중간 집단을 표본으로 추출했다.³⁾

2.2 평가 기준 수립

평가의 결과가 신빙성이 있는 자료로 활용되려면 무엇보다 평가의 기준이 합리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⁴⁾ 원천언어와 목표언어의 두 가지 언어 능력 가운데 어느 쪽의 비중이 더 커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는 이론의 여지가 없지 않지만, 본고에서는 일단 양자를 동일한 비율로 취급했다. 그래서 독해와 표현에 각각 50점씩 점수를 배정하여 총점이 100점이 되게 했다.

(가) 독해면

원문의 독해 능력을 평가하는 작업은 비교적 단순하다. 원문과 번역문의 등가성 여부만을 비교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본고에서도 텍스트를 20개의

-
- 2) 2004년 1학기에 KCU(Korea Cyber University) 컨소시엄의 교양 과목으로 운영되었던 ‘이슈우화와 함께 떠나는 번역 여행’ 강좌는 3회의 번역 과제와 1회의 번역 시험으로 학업의 성취도를 평가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 번역 과제는 여기서 2차 과제로 출제되었던 것인데, 과제 작성 기간은 2주일간(4/19-5/2)이었다. 과제와 시험은 모두 영문 텍스트를 우리말로 옮기는 내용이다.
 - 3) 총점 기준으로 석차 21위부터 60위까지의 점수대에 속하는 학생들의 집단을 말한다.
 - 4) 평가 기준에 대해서는 프랑스어 작문 능력 시험인 DELF의 채점 기준을 참고했다. 총 20점 만점으로 설계된 이 시험의 채점 기준은 다음과 같다. 우선 9점이 배정된 내용면을 보면, 주제의 이해와 기술의 정확성 및 일관성에 각각 3점씩 배정되어 있다. 다음으로 역시 9점이 배정된 형식면을 보면, 시제와 시공간 요소의 활용 및 (형태)통사적 능력과 어휘 능력에 각각 3점씩이 배정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독창성을 평가 요소로 삼는 표현면에는 2점이 배정되어 있다. 그렇지만 우리의 분석 자료인 번역 결과물은 원문 텍스트가 주어지기 때문에 자유 작문을 기반으로 설계된 DELF의 채점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으며, 따라서 본고에서도 이를 조금 변형해서 사용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노정규(1999)를 참고할 수 있다.

문장⁵⁾으로 구분하여 각 문장의 원문과 번역문 사이에 등가성이 확보되었을 때 2.5점을 부여했는데, 문장의 길이가 긴 경우에는 0.5점 단위로 부분 점수를 인정했다.

(나) 표현면

모국어 표현 능력을 평가하는 작업은 독해 능력의 평가에 비해 조금 복잡한 양상을 띤다. 우선 가독성(readability)을 점검해야 한다. 이는 번역문 전체가 한편의 글로서 통일성을 가지고 원문 필자의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문제인데, 세부적으로 보면 어조(tone), 단락 구분, 단락과 문장의 연결, 전체적인 통일성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다음으로 개별 문장의 적격성(well-formedness)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여기에는 문장 성분 사이의 호응 문제를 비롯해서 조사나 어미의 용법 등 주로 문법적인 문제가 포함되는데, 주어진 텍스트가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에, 여기서 평가의 대상이 되는 요소도 어느 정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⁶⁾ 단어의 적격성 차원에서는 국어 어문 규범이 제대로 지켜졌는가를 점검해야 한다.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띄어쓰기, 문장부호, 오자나 탈자 등이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어휘가 적재적소에 올바르게 사용되었는가를 점검해야 한다. 사전적 뜻풀이에 충실한 용법이라 할지라도 해당 문맥에서 어색하게 사용되었다면, 여기서 지적될 것이다.

앞의 세 가지 영역, 즉 가독성과 문장 적격성 및 국어 어문 규범에 대해서는 각각 15점씩 배점하고, 오류에 대해 일정한 점수를 감점하는 방식으로 평가했다. 그리고 어휘 영역에 대해서는 다른 영역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5점을 배점했는데, 이는 독해 영역과도 일정 부분 중첩되는 양상을 띠기 때문이다.⁷⁾

- 5) 아래 텍스트에서 문장 앞에 번호를 매겨서 문장들 사이의 경계를 표시했다. 그리고 괄호로 묶인 첫째 단락의 마지막 문장과 셋째 단락의 첫째 문장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했다.
- 6) 예컨대 경어법의 반영 여부는 한국어의 중요한 특성 가운데 하나이지만 원문 텍스트에 대화문이 없는 관계로 아쉽게도 평가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었다.
- 7) 평가 배점을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가독성에 대해서는 어조의 일관성(3점), 단락 구분 인식(3점), 단락과 문장의 연결(4점), 전체의 통일성(5점) 등으로 설계했다. 문장 적격성과 국어 어문 규범 및 어휘 용법에 대해서는 오류 하나에 대해서

(다) 자료의 처리

이상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학생들이 제출한 과제를 평가한 다음에, 학생 개인별로 독해면의 20개 항목과 표현면의 4개 항목에서 획득한 점수를 항목별로 통계 프로그램(SPSS)에 입력하여 기초 자료를 작성했다.⁸⁾ 이어서 각 항목별로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구하여, 항목별 난이도와 학생들의 이해도를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독해 총점과 표현 총점 및 전체 총점 사이의 상관 계수를 구하여, 세 가지 항목 사이의 상관 관계를 알아보았다.

2.3 평가 텍스트

교양 강좌로 개설된 취지를 살려서 특정 전공에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은 일반적인 내용을 다룬 텍스트를 선정해야 비교적 객관적인 능력 평가가 가능하다. 그래서 대학생들 수준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고, 널리 알려진 역사 이야기가 일부 포함된 내용을 텍스트로 선택했다. 실제로 출제된 과제와 작성 지침은 다음과 같다.⁹⁾

* 다음 영문을 우리말로 옮기시오. (번역의 모든 요소가 평가의 대상이 되므로 완벽한 번역문을 제출하기 바람)

(1)The author relates the little-known story of how Genghis Khan, the historically famous Mongol warlord, defeated many of his enemies from within their ranks by using psychological warfare. (2)In fact, as amazing at it may seem, some of Khan's victories were achieved without a battle! (Let's see how he accomplished this.)

(3)Khan would send specially trained agents in advance of his own approaching army. (4)These people would dress and pose as common

각각 1점씩 전체 총점에서 감점했다.

- 8) 기초 자료는 논문 말미에 부록으로 제시한다. 평균값과 표준편차 및 상관 계수는 본문에서 언급했으므로 따로 제시하지 않는다.
- 9) *Design Your Destiny*, by Guy Finley, 1999.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영문 텍스트 다음에 우리말 번역을 제시하기로 한다. 이는 연구자의 번역이다.

peasants in order to infiltrate the enemy's camp. (5)Once accepted as locals who were loyal and apparently belonged there, spreading alarming stories about the vast size, fierceness, and invincibility of Khan's forces. (6)Since these tales of terror appeared to be coming from their own people--who had no reason to lie--the soldiers and other camp followers accepted the stories as the truth, which meant there was no other choice in the face of such insurmountable odds. (7)The only wise thing to do was to surrender to Khan and hope for mercy.

(What do you think?) (8)Does something seem strangely familiar about this bit of history? (9)It should; there's an ongoing story in our own psyche similar to this one. (10)Yes, we're being deceived and misdirected daily by our present way of thinking. (11)But the light of a new and higher understanding can free us from this deception and all its sad defeats. (12)And this means ... we can have a new destiny if we so choose.

(13)Ignore those parts of yourself telling you that trying to change your destiny with only a wish for a higher life is like trying to climb Mt. Everest with a stepladder. (14)Instead of submitting to these inner voices of defeat, go ahead bravely!

(15)Think for just a moment about what's involved in simply tying a shoelace. (16)Now consider the task of trying to trite a comprehensive set of instructions for this relatively easy physical task. (17)Seems overwhelming--almost an impossibility--doesn't it? (18)And yet, five-year-olds rather quickly learn to tie their own shoelaces in spite of the odds. (19)Why? Because they don't think about and dwell upon the intricacies of the job they're undertaking. (20)They just naturally respond to their own paramount wish to be able to tie their own shoelaces.

[우리말 예시 번역]

저자는 몽골의 전쟁 영웅 칭기즈칸이 심리전을 적극 활용하여 내부에서부터 적을 격파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 사실, 조금 놀랍긴 하지만, 칭기즈칸이 거둔 승리의 상당수는 전투 없이 얻은 것이었다. 이제 칭기즈칸의 전술을 알아보자.

칭기즈칸은 적진에 접근하기 이전에 특수 훈련을 받은 첩자들을 파견했다. 이들은 평범한 농부 복장과 행세를 하고 적진에 자연스럽게 잠입해 들

어갔다. 칭기즈칸의 첩자들은 일단 충성스러운 그 지역 주민들로 받아들여지고 나면 거기 모인 진짜 주민들과 자연스레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이때 칭기즈칸 군대의 어마어마한 규모와 용맹성, 백전백승 신화 등의 ‘놀라운’ 이야기를 퍼뜨렸던 것이다. 이런 끔찍한 이야기가 자기네 주민들 입에서 돌아다녔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이 거짓말을 할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적군 병사들은 첩자들의 이야기를 사실로 받아들였다. 것처럼 막강한 군대 앞에서, 칭기즈칸에게 항복하고 자비를 구하는 것이 그나마 현명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달리 무슨 선택의 여지가 있었겠는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상하게도 이 역사 이야기가 낯이 익지 않은가? 아마도 그럴 것이다. 우리 마음속에서도 이와 유사한 이야기가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일어나고 있다. 우리는 현재의 사고방식 때문에 지금 매일 매일 속아 넘어가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고차원의 이해가 이루어지면 여러분은 이 속임수와 그로 인한 슬픈 패배의 기억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이 말은 우리가 그렇게 선택하면 새로운 운명을 가질 수 있다는 뜻이다.

새로운 운명을 갖는 일이 마치 사다리꼴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하려는 것처럼 어리석은 희망이라고 속삭이는 또 다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된다. 이런 패배주의자의 음성에 항복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여기서 잠깐 신발끈을 묶는 일에 대해 생각해 보자. 비교적 손쉬운 이 물리적 작업을 위한 전반적인 지시 사항을 담은 매뉴얼을 작성한다고 하자. 어쩐지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지 않는가? 하지만 다섯 살짜리 아이들은 자기 신발끈을 매는 방법을 엄청 빨리 배운다. 왜 그럴까? 아이들은 자기가 하려는 일에 얽힌 복잡한 사항을 일일이 따지거나 ‘연구’하지 않는다. 그냥 신발끈을 매고 싶다는 생각에 자연스럽게 응답하는 형태로 배울 뿐이다. 그것만이 아이들의 꿈이요 희망이기 때문이다.

3. 평가 결과 분석

3.1 독해면

과제 텍스트의 20개 문장을 개별적으로 분석하는데, 평균이 비교적 높고 표준편차 역시 크지 않은 문장은 난이도가 낮은 항목으로 보고, 특별히 언급할 사

항이 없으면 번호 옆에 평균과 표준편차만을 제시하기로 한다.

(1) M= 1.4750, SD= 0.2761¹⁰⁾

이 문장에서는 부정 표현 ‘little’과 ‘from within their ranks’에 대한 정확한 독해가 핵심이다. 우선 전자는 부정(否定)의 부사가 없더라도 부정의 의미로 이해해야 하는데도, 일부 학생들이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조금/약간 (알려진)’처럼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 그리고 후자는 전치사가 중첩된 표현인데, 익숙지 못한 어구여서 그런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아예 독해에서 누락시키고 있었다. 그러나 ‘적을 교란시켜 무너뜨리다’ 정도로 뚝뚝그려 의역을 한 한두 학생을 제외하면 비슷하게나마 의미를 파악해낸 학생은 단 한 명에 불과했다.¹¹⁾ 이 어구의 뜻은 물론 ‘내부에서부터 (적을 격파하다)’ 내지 ‘안에서부터 무너뜨리다’ 정도가 된다. 이 밖에 동사 ‘relate’의 뜻을 ‘관련시키다’처럼 엉뚱하게 파악한 경우도 간혹 눈에 띄었다.

(2) M= 2.3625, SD= 0.4085

(3) M= 2.1750, SD= 0.5943

이 문장에서는 조동사 ‘would’의 용법만 정확하게 파악하면 된다. 이른바 과거의 불규칙적인 습관을 표시하는 용법이지만, 굳이 ‘...하곤 했다’처럼 옮기지 않고 그냥 과거 표현으로 옮겨도 문맥에는 지장이 없다.¹²⁾

(4) M= 1.5500, SD=0.3162

10) M= Mean(평균), SD= Standard Deviation(표준편차)

11) 이들의 번역은 ‘적의 군대 내부에서 적을 물리치다’ 정도로 되어 있었다. 정확한 독해에는 못 미치지만 문맥상 어느 정도 뜻이 통한다고 보고 일부 점수를 인정했다.

12) 삽화 부분의 시제만을 현재형으로 처리해서 생동감을 높인 번역문도 보였다. (예) “(전략) 미리 훈련시킨 첩보원을 보냅니다. 이들은 적진에 침입하기 위해 평범한 농부처럼 행동하고 옷을 입습니다.”(No. 30) 한편 예문 끝의 괄호 안에 적힌 번호는 제출자의 일련번호 표시이다. 예컨대 이 예문은 30번 학생의 과제물에서 뽑은 것이다.

이 문장에서는 부정사구의 처리가 관건인데, 특히 목적 용법이 아닌 결과 용법으로 옮겨야 자연스럽다. 이 부정사구를 목적으로 파악하느냐, 아니면 결과로 파악하느냐 하는 문제는 텍스트의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서사 텍스트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시간의 진행으로 보나 논리적인 사건 전개로 보나 ‘... 복장과 행세를 하고 적진에 잠입해 들어갔다’ 처럼 결과 용법으로 옮겨야 자연스럽다. (만일 설명 텍스트라면 목적 용법도 가능할 것이다.) 아쉽게도 이 부분을 결과 용법으로 옮긴 학생은 단 한 명에 불과했다.¹³⁾

(5) M= 1.8250, SD= 0.8589

이 문장¹⁴⁾에서는 접속사 ‘once’의 용법 파악이 핵심이다. 이 접속사는 조건 용법으로 사용되었는데, 초보적인 문법 사항이지만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과제가 일부 보여서 다소 뜻밖이었다. 이 밖에도 문장의 길이가 길고, 나열된 세 개의 명사(size, fierceness, invincibility)가 부담이 되어서 그런지 위의 통계에서 보듯이 평균값도 그리 높지 않았다.

(6) M= 1.7625, SD= 0.8242

이 문장에서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since’만 제대로 파악하면 되지만, 길이가 제법 되는 관계로 끝에 덧붙은 관계대명사절의 처리에서 실패한 번역이 많았다. 역시 통계에서 보듯이 평균값이 그리 높지 않았다.

(7) M= 2.2125, SD= 0.5534

(8) M= 2.1125, SD= 0.5936

(9) M= 1.9000, SD= 0.8412

문장은 단순한데, 전반부의 세미콜론 처리가 미숙해서 감점을 당한 경우가 많았다. 표준편차에서 드러나듯이 모든 학생들에게 난이도가 높았던 것은 아니다.

13) “이 사람들은 시골 농부같이 차려입고 적의 막사로 침투한다”(No. 9).

14) 이 문장을 옮길 때 관계대명사 ‘which’ 이하를 별개의 문장으로 처리한 번역문도 보였는데, 이는 아마도 관계대명사가 계속적인 용법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10) $M= 1.9125, SD= 0.8156$

이번에도 위의 (9)처럼 문장은 단순한데 평균값이 높지 않게 나온 것은 내용 자체가 익숙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는 위에 비유적으로 나온 역사적 삽화가 의미하는 바를 잘 이해하면 해결이 가능한 문제였다. 즉, 전쟁을 하기도 전에 전의를 상실하게 만들어서 싸우지 않고 이긴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내부적인 사고방식이 이미 우리의 외부적인 행동 양식을 결정해버린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예시이기 때문이다. 텍스트를 총체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태도가 아쉬운 대목이었다.

(11) $M= 2.4125, SD= 0.2232$

(12) $M= 2.3750, SD= 0.2467$

(13) $M= 0.9250, SD= 1.0349$

두 번째로 낮은 평균값을 보인 문장이었는데, 구조 자체도 단순하고 내용도 분명한데 결과는 예상 밖이었다. 실제 제출된 과제를 확인해본 결과, 감점을 받은 학생들 대부분은 전반부 ‘those parts of yourself’와 ‘only a wish’의 의미 파악에서 실패했음이 드러났다. 전자는 앞에 나온 (9)번 문장에서, 후자는 바로 뒤에 나오는 (14)번 문장에서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어구였다. 이야기의 전반적인 흐름과 앞뒤 문맥을 참고하지 않고 독해하는 고질적인 습관에서 비롯된 폐단으로 생각된다.

(14) $M= 2.2125, SD= 0.5761$

(15) $M= 1.7125, SD= 0.7501$

이 문장은 동사 ‘think about’와 목적어 ‘what is ...’ 어구로 이루어진 간단한 명령문인데, 일부 학생들이 목적어 부분의 번역에서 감점을 당했다.

(16) $M= 0.5375, SD= 0.8350$

가장 낮은 평균값을 보인 문장이었다. 이 문장을 잘 보면 ‘this relatively

easy physical task'가 위에서 말하는 'tying a shoelace'를 가리킨다는 사실을 곧 알 수 있는데, 지시사 'this'를 간과하고 이 어구를 추상적으로만 파악해서¹⁵⁾ 결과적으로 문장 전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또한 'a comprehensive set of instructions'의 의미도 구체적인 상황을 연상하면 매뉴얼이나 제품 설명서 등이 떠올라서 의미 파악이 가능했을 테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렇지 못했다. 교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학생들은 어떤 관념에 대한 설명이나 이야기는 곧잘 독해를 하면서도, 오히려 구체적인 일상과 관련된 내용은 독해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문장도 역시 이런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어쩌면 명문(名文)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중·고등학교 시절의 독해 수업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을지 모른다.

(17) M= 2.1875, SD= 0.5510

(18) M= 2.2500, SD= 0.2773

(19) M= 2.3000, SD= 0.4909

(20) M= 1.8625, SD= 0.6697

감점을 받은 학생들은 주로 'respond to'의 번역에서 실패했다. 이 문장은 (18)번 문장의 이유를 설명하는 바로 앞 문장 (19)에 대한 부연 설명인데, 이러한 흐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나의 단락 안에 서술된 문장들의 집합은 모두가 고리처럼 질서정연하게 엮여서 통일된 메시지를 표현하고 있다는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이해와 적용이 아쉬운 대목이다.

한편, 많은 학생들의 번역에서 임의로 누락된 내용이 눈에 띄었는데, 이는 지나치게 유려한 문장을 의식한 데서 비롯된 오류로 판단되었다. 무엇보다도 정확한 독해가 번역의 시작이자 마무리라는 기본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15) 예를 들어 다음 학생(No. 40)의 번역이 그러하다. “상대적으로 쉬운 육체적 일을 위해 이해하기 쉬운 교보재를 쓰도록 노력하는 일을 고려해 봅시다.”

3.2 표현면

(1) 가독성(M= 12.3000, SD= 1.2237)

여기서는 앞서 평가 기준에서 제시한 대로, 어조의 일관성과 단락 구분 의식, 문장과 단락의 자연스러운 연결, 단락의 통일성 등을 점검해 보기로 한다.

번역자가 번역에 앞서 주어진 텍스트를 분석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전체 텍스트의 문체를 이끌어가는 어조의 결정이다. 예컨대 이 텍스트는 본론을 꺼내기 전에 역사 이야기가 삽화처럼 먼저 소개되고 있는 격자 형식의 글이므로, 전반부인 역사 삽화와 후반부인 본론을 다른 어조로 이끌고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일부 학생들은 고심한 끝에 삽화를 평어체로 처리하고 본론 부분을 경어체로 처리하기도 했다.) 문제는 일단 어조가 결정되면, 작가의 서술 태도가 변하기 전까지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별다른 이유 없이 중간에 어조가 변하는 과제가 적잖게 눈에 띄어서, 감점의 대상이 되었다.¹⁶⁾ 다음으로 주목한 것은 단락의 구분에 대한 번역자의 인식 여부였다. 원래 과제로 제시될 때 영문 텍스트 자체에 단락 구분이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틀에 따를 것으로 예상되었다. 하지만 의외로 10%를 넘는 5명의 학생들이 단락의 구분을 무시하고 있었다.¹⁷⁾

단락은 하나의 통일된 주제를 담고 있으며, 그러한 단락의 통일성을 확보해주는 것은 그 안에 담긴 문장과 문장 사이의 논리적인 연결 관계이다. 평가 결과, 문장과 문장 사이의 부분적인 문체가 발견된 적은 더러 있었지만¹⁸⁾, 위의 통계에서 보듯이 전체적으로 단락의 통일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경우는 많지 않았다.

16) 경어체와 평어체가 단락 안에서 혼용되는 경우는 물론 감점의 대상이 되지만, 다음 예문처럼 경어체의 등급을 위반한 것도 감점의 대상이 된다. “..... 목살하십시오. 이 패배의...(중략)... 나아가시오!”(No. 15).

17) 이는 많은 학생들이 아직도 번역 과제를, 한 편의 글을 창작하는 행위라기보다 단편적인 문장을 해석하는 연습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18) 예컨대, 아래와 같은 (18)번 문장의 번역에서 맨 앞의 접속부사 ‘그리고’는 ‘그런데’나 ‘그렇지만’, ‘그러나’ 등으로 고쳐야 한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다섯 살짜리 아이가 자신의 구두끈 묶는 것을 다소 빨리 배운다”(No. 19). 문맥의 흐름상 분명히 역접의 접속 요소가 쓰여야 하기 때문이다.

(2) 문장 적격성(M= 11.9750, SD= 1.6716)

우선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어색한 직역투(번역투) 문장의 존재이다.¹⁹⁾ 출현 빈도순으로 한 가지씩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원문의 구문 구조가 그대로 연상되는 축자적 번역의 문제이다.

(a.1) 그는 심리적인 전투를 이용함으로써 적들을 패배시켰다.(No. 6)

(a.2) 엄청난 규모와 사나움, 그리고 아무도 엄두를 못 내는 ...(하략)...(No. 14)

위 (a.1)의 밑줄 그은 부분은 영어의 전형적인 ‘by ...ing’ 구문이 연상되는데, 굳이 ‘...함으로써’ 구문을 쓰지 않더라도 그냥 ‘이용하여’ 정도로 처리해도 무난하고 자연스럽다. (a.2)에서도 나열할 때 흔히 사용하는 ‘A, B, and C’ 구문이 연상되는데, 국어에서 접속부사 ‘그리고’는 보통 문장의 앞머리에서 사용된다.

② 일부 형태가 불필요하게 나타나는 잉여적 요소의 문제이다.

(b.1) 왜냐하면 아이들은 ...(중략)... 어렵다고 생각하지도 않기 때문이다.(No. 17)

(b.2) 그들은 단지 그들 자신의 신발끈을 ...(중략)... 반응할 따름이다.(No. 6)

위의 (b.1)에서는 밑줄 그은 ‘왜냐하면’과 문장 끝의 ‘때문이다’의 기능이 중복되어 있고, (b.2)에서는 밑줄 그은 형태 ‘그들’이 불필요하게 나타나고 있다. 원문의 접속사 ‘because’와 ‘their (own)’의 존재가 그대로 반영된 번역이다.

③ 원문의 인칭대명사가 그대로 사용되어 문맥에서 지칭 대상과 거리감이 느껴지는 경우이다. 아래의 밑줄 그은 부분은 재귀대명사로 바꾸어야 자연스럽게 느껴질 것이다.

19) 이에 대한 최근의 종합적인 연구로는 김정우(2003)를 참고할 수 있다.

(c) 그들은 일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그들이 행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 ...(중략)... 때문이다.

④ 영어의 복수 표시 굴절요소가 기계적으로 대응되는 문제로서, (2)번 문장의 번역에서 ‘승리들’이나 ‘전투들’처럼 ‘-들’이 불필요하게 첨가되어 있다.²⁰⁾

다음으로 조사와 어미의 용법 오류가 많이 나타났다. 다음 자료를 보자.

(d.1) 의미한다는 것을 진실로써 받아들인다.(No. 7)

(d.2) 용감하게 전진해라!(No. 11)

위의 (d.1)의 밑줄 그은 부분은 ‘-로서’가 되어야 하고, (d.2)의 밑줄 그은 부분은 간접적인 대화 상황이므로 간접명령어미인 ‘-라’가 결합된 ‘전진하라!’가 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문장 성분 사이의 호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문장이 눈에 띄었다. 아래의 (e.1)은 주어와 술어의 호응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e.2)는 목적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e.1) 칸의 승리가 교전 없이 성취했다는 것이다.(No. 34)

(e.2) 이것은 의미합니다. 우리는 ...(중략)... 새로운 운명을 가질 수 있습니다.(No.25)

위의 (e.1)에서는 ‘승리가 ... 성취되었다’로 고쳐야 한다. 그리고 (e.2)에서는 ‘우리는’ 이하의 문장이 ‘의미하다’의 목적어인데도 이런 사실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20) 물론 이들 경우는 이른바 사건 복수의 개념으로도 아무런 기능을 갖지 않는다. 사건 복수의 개념에 대해서는 임흥빈(2000)을 참고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많은 학생들(9/40)의 번역에서 의존명사 ‘것’이 한 문장 안에 지나치게 남용되어서 전체 문장을 모호하게 만들고 있었다.

(f) 자신이 말하는 것을 무시하는 것은 오직 더 높은 삶을 위하여 ...(중략)... 산을 오르기 위해 노력하는 것과 같이 당신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No. 33)

위 (f)는 조금 극단적인 사례이겠지만, 다른 학생들의 번역에서도 2, 3회 이상씩 ‘것’이 나타나 있었다. ‘것’은 자신의 고유한 어휘 의미가 없는 형식명사이므로 문장에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면 독해에 곤란을 준다. 가급적 피하도록 해야 한다.

이 밖에도 시제 용법, 어순, 연어(collocation) 등의 오류가 나타났다.

(3) 국어 어문 규범(M= 10.9250, SD= 2.2347)

가장 많은 학생들이 오류를 범한 문제는 외래어 표기법의 준용이었다. 과제 텍스트에는 외래어가 3개 있었는데, ‘에베레스트 산’은 모두 정확하게 표기했지만, 나머지 두 단어인 ‘몽골’(5/40)²¹⁾과 ‘칭기즈칸’(37/40)은 그렇지 않았다. 특히 ‘칭기즈칸’은 단 3명만이 정확하게 표기하고 있었다. 이 단어의 표기는 외래어 표기 용례집이나 국어대사전에 분명히 등재되어 있는데도,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은 외래어 표기법 자체에 대한 관심의 부족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아울러 인명을 아예 우리말로 표기하지 않고 ‘Genghis Khan’처럼 그대로 영문으로 남겨두어 ‘번역을 포기’한 경우도 적잖게 눈에 띄었다(6/40).

다음으로 문제가 된 오류는 띄어쓰기 영역이었다. 특히 다음과 같이 초보적인 형태에 대한 띄어쓰기도 무시되는 경우가 많았다.

(g.1) 어근 + 하다. (예) 불가능-하다

(g.2) 관형형어미 ∨ 의존명사. (예) 묶는 데

(g.3) 어간 + 지다. (예) 알려-지다

21) 오답률을 가리킨다.

다음으로 문장부호 용법에서도 오류가 많이 발생했다. 원문 텍스트에는 줄표(dash)가 2회, 세미콜론이 1회 나오는데, 이를 그대로 우리말 번역으로 옮겨 오거나 다음의 자료처럼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한 번역이 많았다.

(h.1) 그렇습니다, 우리는 현재의 사고방식에 의해서 ...(중략)... 있습니다.

(No. 1)

(h.2) 이 이야기가 그 지역 사람들-믿어 의심치 아니한-로부터 들려온 ...(No.

32)

위 (h.1)에서는 문장을 종결하는 어미 다음에 쉼표가 잘못 사용되었는데, 원문 텍스트에는 이 자리에 세미콜론이 있다. (h.2)에서는 체언(‘사람들’)과 조사(‘-로부터’)를 줄표 부분이 둘로 가르고 있어서, 읽기가 매우 불편하다. 이런 경우라면 줄표 부분이 그 앞의 체언을 수식하는 용법으로 사용되었으므로 ‘믿어 의심치 아니한 그 지역 사람들로부터’ 정도로 어순을 다시 배치하고 줄표를 없애는 편이 자연스럽다.²²⁾

일부 학생의 번역에서는 표준어에 대한 인식도 문제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용례가 ‘바람’을 ‘바람’처럼 쓰는 것인데, 사전에서 확인하는 습관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밖에 철자 오류²³⁾와 오자, 탈자 등의 문제도 눈에 띄었다.²⁴⁾

(4) 어휘(M= 3.5500, SD= 1.1535)

어휘(단어) 용법의 점검에서 나타난 가장 큰 문제는 단어의 뜻을 결정할 때 인접한 문맥을 참고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22) 문단 첫머리를 들여쓰는 규칙을 지키지 않은 경우나, 국어의 접속부사 ‘그리고’나 ‘그런데’ 다음에 쉼표를 찍는 오류를 범한 학생도 있었다.

23) 대표적인 오류는 ‘쓸려고’(→ 쓰려고)와 ‘치룬’(→치른) 등이었다.

24) 오류의 유형은 문장 적격성을 점검하는 (나) 영역이 많았지만, 실제 오류 발생 빈도는 국어의 어문 규범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다) 영역이 높았다. 그래서 통계 자료에서 보듯이 (다) 영역의 평균값이 (나) 영역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다) 영역이 개인별 편차도 상당히 컸다.

- (i.1) 지금 상대적으로 쉬운 육체적인 일을 ...(중략)... 생각해 보라.(No. 2)
 (i.2) 현재의 사고방식에 의해서 매일같이 사기를 당하고 있습니다.(No. 31)

위 (i.1)과 (i.2)의 밑줄 그은 부분은 각각 ‘비교적’과 ‘속고/ 현혹되고’ 정도가 되어야 문맥에 어울린다. 이는 많은 학생들이 아직도 단어의 뜻을 문맥에서 결정하지 않고 사전에서 결정한다는 방증이 될 수 있다.

다음으로 영어와 국어의 어휘 특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상명사의 쓰임새가 두드러진 영어의 추상명사를 국어에 그대로 옮겨오면 뜻이 쉽게 통하지 않는다.

(j) 군대의 맹렬함, 많은 일의 복잡함

위의 추상명사 단어는 각각 ‘맹렬한 기세’라든가 ‘복잡한 성격’ 등으로 고쳐야 국어의 어휘 체계에 자연스럽게 용인된다.

다음으로 주어진 단어의 의미를 결정할 때 해당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시간과 공간적 배경을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에 대한 확고한 인식이 필요하다. 예컨대 과제 텍스트의 전반부에 ‘agents’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사전적인 뜻풀이로 보면 ‘대리인’, ‘스파이’, ‘간첩’ 등 여러 가지로 옮길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이야기가 12, 3세기 몽골의 사정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선택의 범위가 훨씬 좁아져서 ‘첩자’, ‘세작’, ‘간자’ 등으로 압축된다. 이러한 사정을 전혀 무시한 채 사전적 뜻풀이에만 매달리면 좋은 번역 어휘를 찾기가 힘들다.²⁵⁾

또한 국어의 어휘 체계는 고유어와 한자어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 독자적인 통합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k) *5살 / cf) 다섯 살, 5세(五歲)²⁶⁾

위 (k)는 나이를 표현하는 어구인데, 고유어는 고유어끼리 어울리고 한자어

25) 심지어 현대적인 분위기가 물씬 나는 ‘특전사’(No. 22)라는 어휘를 사용한 경우까지 있었다.

26)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이 부분에서 오류를 범해서 감점을 당했다.

는 한자어끼리 어울리는 결합 규칙을 발견할 수 있다.

그밖에도 단어의 뜻을 어구의 뜻풀이처럼 해놓은 경우도 있었다.²⁷⁾

3.3 상관 관계

여기서는 독해와 표현 및 번역 성공률(총점) 사이의 상관 관계를 알아보기로 한다. 독해 총점(ct: comprehension total)과 표현 총점(et: expression total) 및 전체 총점(t: total)을 변수로 해서 이들 변수 사이의 상관 관계를 산출해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²⁸⁾

[도표] 독해 총점과 표현 총점 및 전체 총점 사이의 상관 관계

	CT	ET	T
CT	1.000	.019	.890**
ET	-	1.000	.473**
T	-	-	1.000

위의 도표에 의하면, 독해와 표현 사이에는 직접적인 상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독해 능력이 우수하면 표현 능력도 우수하다는 등의 가설은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뒤집어 말하면 적어도 번역 작업에서는 독해 능력과 표현 능력이 각각 별개로 학습되어야 한다는 뜻도 된다.

그런데 독해 능력과 총점 및 표현 능력과 총점 사이에는 주목할 만한 상관 관계가 확인되었다. 상관 계수가 각각 0.890과 0.473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원천언어(영어) 독해 능력과 번역의 최종 결과 및 목표언어(국어) 표현 능력과 번역의 최종 결과 사이에는 상관성이 존재한다는 뜻이다. 양자 가운데서도 특히 독해 능력과 번역의 최종 결과 사이의 상관성이 상당히 높게(high

27) 예컨대 'invincibility'를 '이겨낼 수 없음'처럼 옮긴 경우를 말한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설명은 단어의 번역이 될 수 없다.

28) 위 표는 SPSS의 원래 도표를 피어슨 상관 계수만 옮겨서 간략하게 처리한 것이다. 별표(*)는 유의도를 나타낸 것으로 위의 경우처럼 별표가 두 개(**)이면 0.01 수준에서 유의하다(significant)고 말할 수 있다.

correlation) 나왔다.²⁹⁾ 이는 일견 당연한 결론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번역 과정에서는 무엇보다 원천언어에 대한 독해 능력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하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독해 능력보다는 못하지만, 표현 능력과 번역의 최종 결과 사이에도 미약하나마(low or moderate) 무시할 수 없는 상관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목표언어의 표현 능력도 번역 과정에 없어서는 안 될 요소임을 말해주는 결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4. 분석 결과의 의의: 번역 교육과 관련한 제언

이상과 같은 분석 결과는 우리가 교양 과정에서 번역 강좌를 운영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제안을 묵시적으로 증언하고 있다. 예컨대 독해 결과 분석에서 평균값이 낮고 표준편차가 크게 나타난 문장 집합은, 학생들에게 일반적으로 이해에 부담이 되는 유형의 문장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기존의 교과 내용에 덧붙여 이러한 유형의 문장에 대한 집중적인 교수/학습이 적절한 비중으로 이루어진다면 전반적인 번역 능력 함양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4.1 원천언어의 독해 능력 함양

앞서 3.1에서 번역 성공률이 비교적 낮았던 문장들을 순서대로 열거해 보면 (16)번, (13)번, (1)번, (4)번 문장이다. 앞의 3.1에서도 언급했지만, 이들 문장에 대한 독해 성공률이 저조한 것은 무엇보다 문맥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해당 문장을 이해하는 습관이 부족한 데서 비롯된 결과로 생각된다. 인접 문맥을 떠나서 행해지는 문장의 고립적인 번역은 절대로 완전할 수 없다. 번역에 대한 특별

29) 상관 계수에 대한 일반적인 통계학적 의미 부여는 다음과 같다.

- .90 ~ 1.00 : very high positive/negative correlation
- .70 ~ .90 : high positive/negative correlation
- .50 ~ .70 : moderate positive/negative correlation
- .30 ~ .50 : low positive/negative correlation
- .00 ~ .30 : little if any positive/negative correlation

한 사전 학습이나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수강하는 교양 과목이라는 배경도 작용했겠지만, 많은 학생들은 아직도 번역을 길든 짧은 한 편의 이야기를 국어로 다시 창작하는 행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단순히 주어진 문장 하나하나를 뜻풀이하는 해석 연습 정도로 생각하는 차원에 머물러 있었다. 번역은 어떤 단위의 것이든 문맥을 떠나서는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없음을, 실제 수업 현장에서 항상 강조해야 할 것이다.³⁰⁾

다음으로 다양한 담화 상황을 담은 텍스트에 대한 번역 연습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는 고등학교까지 이루어진 영어 학습이 대체적으로 명문(名文) 텍스트 위주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회적 활용을 전제로 하는 대학의 교양 번역 과목에서는 실제 다양한 담화 상황에서 사용되는 텍스트를 옮기는 연습이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중·고등학교 영어 수업에서 물려받은 해석 방식의 하나인 역행적 독해 방식 이외에 순차적/전향적 번역(progressive translation) 방식에 대한 교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³¹⁾

4.2 목표언어의 표현 능력 함양

앞서 3.2에서 논의되었던 문제는 크게 네 가지 유형, 즉 가독성과 문장 적격성, 국어 어문 규범 준수 여부, 어휘 용법 등이었다. 우선 가독성 문제에서는 단락의 개념에 대한 교수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직접 일정한 주제를 가지고 개요를 작성하고 이야기를 전개해나가는 훈련이 도움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문장 적격성 영역에서는 직역투(번역투)가 시정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인데, 이를 위해서는 영한 대조 문법에 대한 심도있는 교수가 필수적이다. 양쪽 언어의 구조와 문법 사항에 대한 개별적인 이해를 넘어서서 양자를 비교하고 대조해 가면서 차이를 극복하는 방안을 평소에 학습/연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국어 어문 규범에 대해서도 기초적인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실제 글쓰기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과 과정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30) 문맥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김정우(1999)를 참고할 수 있다.

31) 순차적 번역 방식에 대해서는 성백환(2003)을 참고할 수 있다.

4.3 산학협동을 통한 시장 적응력 제고

번역은 최종 결과물로 독자에게 평가를 받는다.³²⁾ 그러므로 번역의 결과물에는 번역자의 모든 능력이 집약적으로 담겨야 한다. 그런 번역과 번역서만이 시장에서 독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아서 널리 읽힐 수 있다. 이와 같이 독서 시장이라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본다면, 학생들이 제출한 과제물의 번역 수준은 특히 문장력³³⁾에서 전반적인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로 분석될 수 있고 또 그 대책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처방될 수 있겠지만, 그 원인 가운데 적어도 하나는 앞서 언급한 많은 학생들의 고정 관념, 즉 아직도 번역을 해석의 연장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데서도 찾을 수 있다. 그러므로 견습생(internship) 제도나 현장 실습 등의 산학협동을 통한 시장 적응력 제고보다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예비 번역가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5. 맺음말

지금까지 우리는 학생들의 번역자의 언어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논의를 진행했다. 평가의 대상을 독해면과 표현면으로 나누어 일정한 기준을 마련한 다음에 이를 토대로 40건의 개별 자료에 대하여 평가를 진행했는데, 논의의 과정과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모든 번역 행위가 문맥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명제에 대한 교수가 필요하다. 이는 문장이든 단어든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기본적인 번역의 원칙이다. 그리고 현장 적용 가능성을 염두에 둘 때 다양한 담화 상황을 담은 텍스트에

32) 이런 맥락에서 번역문 가운데 괄호를 동원해서 글 자체를 번거롭게 만든 다음과 같은 학생들의 경우라면 특히 이 개념을 숙지해둘 필요가 있다. “이 이야기가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즉, 적의 진영 사람들)에게서 나타나기”(No. 35) 번역은 가능성의 제시나 나열이 아니라, 번역가에 의한 최종 선택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33) 제한된 강의 시간에 국어 문장론과 규범에 관한 내용을 충분히 다루기란 힘든 일이다. 그러므로 국어 작문 등의 과목을 선수 과목으로 이수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대한 번역 연습이 필요하다. 또한 단락 개념에 대한 인식과 자연스러운 국어 문장에 대한 확고한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기존의 번역 교육 과정에 마련된 교수 내용에 이와 같은 제반 사항을 덧붙인다면, 현재의 번역 교육이 한층 내실화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외국어의 독해 능력과 모국어의 표현 능력이 모두 포괄적인 번역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때, 이 두 가지 능력은 모두 번역 교육에서 적절한 균형을 이룬 상태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양자의 평가 비중을 과연 동등하게 할 것인가, 평가의 세부 영역을 어느 정도까지 확대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앞으로 해결되어야 연구 과제로 남겨 둔다.

참고 문헌

- 김순영. 2003. 「Enrichment of 'the' in English-Korean Translation」, 『번역학연구 4-2』, 155-173.
- 김정우. 1999. 「번역 과정과 문맥의 단계」, 『교육 이론과 실천 9』, 217-231.
- 김정우. 2003. 「국어 교과서의 외국어 번역투에 관한 종합적 고찰」, 『배달말 3』, 143-167.
- 김정우. 2004. 「대학 교양 영역으로서의 번역 과목의 의의」, 『번역학연구 5-1』, 25-53.
- 노정규. 1999. 「모국어 작문 능력과 외국어 작문 능력의 상관 관계」, 『프랑스학 연구 17』, 45-70.
- 성백환. 2003. 「심층적 순차번역의 방법과 의의」, 『번역학연구 4-2』, 117-129.
- 송요인. 1975. *Translation: Theory and Practice*, 서울: 동국대 출판부(英文).
- 안임수. 2002. 「학부제 하에서의 전공과 번역 지도」, 『번역학연구 3-2』, 47-62.
- 유명우. 2003. 「대학의 외국어 교육과 번역 교육」. 『봄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번역학회. 16-20.
- 임홍빈. 2000. 「복수 표지 ‘들’과 사건성」, 『애산학보 24』, 47-62.

[Abstract]

A Tentative Method for Translation Evaluation

Kim, Jeong-Woo
(Kyungnam University)

This paper has two main purposes: first, to prepare reasonable criteria for evaluating the translation product; second, to suggest some emphatic points of translation education by making use of the results from the above evaluation and its analysis.

As for the comprehension of the source text, students whose products were used as materials of our analysis have revealed some weak points such as double preposition phrases and negative quantity expressions. They are particularly needed for translation drills related to the concrete speech situation. In this context, future-translators should keep in mind the proposition that all translation be carried out in context, whether it be on a sentence level or on a word level.

As for the expression of the target language, students are required to practice written composition on a certain subject in order to recognize and improve their concepts of paragraph and its unified thought. In addition, they cannot ignore the four linguistic norms of Korean, which form the final output of the translation product.

As shown in the correlation of statistics, the two main capacities, that of comprehension of the source language and that of expression by the target language should be dealt with under a proper balance.

▶ **Key Words:** translation evaluation, translation education, comprehension of source language, expression by target language, correlation of total score and comprehension/ expression capacity.

[부록 1] 항목별 점수 일람표³⁴⁾

C1	C2	C3	C4	C5	C6	C7	C8	C9	C0	C1	C2	C3	C4	C5	C6	C7	C8	C9	C0	E1	E2	E3	E4
1.0	2.5	2.5	1.5	2.5	1.5	2.0	1.5	2.5	2.5	1.5	2.5	.00	2.0	1.5	.00	2.0	1.5	2.0	2.5	12.	9.0	12.	2.0
2.0	2.5	2.5	1.5	1.0	1.5	2.5	2.5	2.5	2.0	2.0	2.5	2.0	2.0	2.0	.00	2.5	2.0	2.5	1.0	13.	12.	8.0	4.0
1.5	2.0	1.5	1.5	2.0	2.0	1.5	2.5	.00	2.5	2.5	2.5	.00	2.5	1.5	1.5	2.5	2.5	2.0	1.5	13.	11.	10.	2.0
1.0	2.0	2.5	1.5	1.0	2.5	1.0	2.5	.00	1.5	2.5	2.5	.00	2.5	1.0	.00	2.5	2.5	2.5	2.0	13.	13.	10.	3.0
1.5	2.5	1.5	1.5	2.0	1.5	1.0	2.0	2.0	2.5	2.5	2.0	.00	2.5	2.0	.00	2.5	2.0	2.0	2.0	14.	8.0	14.	2.0
1.5	2.5	2.0	1.5	2.5	1.0	2.5	2.0	2.5	.00	2.5	2.5	.00	2.5	2.0	.00	2.0	2.5	2.5	2.0	13.	9.0	12.	5.0
1.0	2.5	2.5	1.5	2.0	2.0	2.5	2.5	2.5	2.0	2.5	2.5	.00	2.5	2.0	.00	2.5	2.0	2.0	1.5	10.	12.	12.	4.0
1.5	2.5	1.0	1.5	.00	2.5	2.5	2.0	2.0	1.5	2.0	2.5	.00	.00	.00	.00	2.0	2.5	2.5	2.5	10.	14.	9.0	4.0
1.5	2.5	2.5	2.5	.50	1.5	2.0	2.0	2.5	2.0	2.5	2.0	.00	2.5	2.5	.00	2.5	2.0	.00	.00	11.	15.	12.	5.0
1.0	2.5	2.0	1.0	.50	2.5	2.5	2.5	2.5	2.0	2.5	2.5	2.0	2.5	1.5	.00	2.0	2.0	2.5	1.5	13.	11.	11.	5.0
1.5	2.5	2.5	1.5	1.0	2.5	2.5	2.0	1.5	.00	2.5	2.5	1.5	2.0	2.0	.00	1.5	2.0	2.5	2.0	12.	14.	11.	3.0
1.5	2.5	2.5	1.5	2.5	1.5	2.0	2.5	1.5	2.5	2.5	2.5	.00	2.5	1.0	.00	2.5	2.0	1.5	1.5	13.	13.	12.	2.0
1.5	2.5	2.5	1.5	1.5	.00	2.5	2.5	2.5	2.5	2.5	2.5	2.5	1.0	.00	2.0	2.0	1.0	2.0	13.	12.	12.	4.0	
2.0	2.5	2.5	1.5	2.5	2.0	2.5	2.5	2.5	1.0	2.5	2.5	1.5	2.5	2.0	.00	1.5	2.5	2.5	2.0	14.	14.	2.0	5.0
1.5	2.0	2.5	1.5	1.5	2.5	1.5	2.0	2.5	2.5	2.5	1.5	2.5	2.5	1.0	1.0	2.5	2.5	2.5	12.	11.	11.	3.0	
1.5	2.5	1.5	1.5	2.5	1.5	2.5	2.5	2.5	2.0	2.0	2.5	2.0	2.0	2.5	2.0	.00	2.5	2.0	2.5	10.	13.	11.	2.0
2.0	2.5	2.5	1.5	2.5	1.5	1.5	.00	2.0	2.5	2.5	2.5	.00	2.5	.00	.00	.00	2.5	2.0	2.5	13.	10.	13.	4.0
1.5	2.0	2.5	1.5	2.5	1.5	2.5	1.5	2.0	.00	2.5	2.5	2.5	2.5	2.0	.00	1.0	2.5	2.5	2.0	12.	13.	8.0	4.0
1.5	2.5	2.5	1.5	.00	2.0	2.5	2.5	1.5	2.5	2.5	2.5	2.0	2.5	2.0	1.5	2.0	2.5	2.5	2.5	12.	12.	11.	3.0
1.5	2.5	1.5	1.5	2.0	2.5	2.0	2.0	.00	2.5	2.5	2.0	.00	2.5	2.0	1.5	2.5	2.5	2.5	1.5	12.	13.	11.	2.0
1.5	2.5	2.5	1.5	2.0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0	2.5	2.5	2.5	2.5	14.	12.	10.	5.0
1.5	2.5	2.5	1.5	2.5	2.0	2.5	2.5	2.5	2.5	2.5	2.5	2.0	2.5	2.5	2.5	2.5	2.0	2.5	2.5	14.	12.	14.	2.0
1.5	2.5	2.5	1.5	.00	2.0	2.5	2.5	2.5	2.0	2.5	2.5	2.5	2.5	2.5	1.0	2.0	2.5	2.5	2.5	13.	13.	13.	5.0
1.5	2.5	2.5	1.5	2.5	2.0	2.5	2.5	2.5	2.0	2.5	1.5	.00	2.0	1.0	.00	2.5	2.0	2.5	2.5	13.	8.0	11.	3.0
1.5	2.5	2.0	1.5	2.0	.00	2.5	1.5	1.5	.00	2.5	2.5	.00	2.5	1.0	.00	2.5	2.5	2.0	1.5	13.	13.	14.	3.0
1.5	2.5	.00	1.5	2.5	1.0	2.5	2.0	1.0	2.0	2.5	2.5	.00	2.5	.00	.00	1.5	2.5	2.5	1.5	12.	13.	11.	1.0
1.5	2.5	.50	1.5	.00	2.5	2.5	2.5	1.5	2.5	2.0	.00	2.5	2.0	.00	2.0	2.0	2.5	2.5	10.	14.	9.0	5.0	
1.5	2.5	2.5	1.5	2.5	2.5	2.0	.50	2.0	2.5	2.5	2.0	2.5	2.5	2.0	1.5	2.5	2.0	2.5	2.5	13.	9.0	12.	3.0
1.5	2.5	2.5	1.5	2.5	2.5	2.5	2.5	2.5	2.0	2.5	2.0	.00	1.5	1.5	.00	2.5	2.0	2.5	2.0	11.	13.	8.0	4.0
1.0	2.5	2.5	1.5	2.0	.00	2.5	2.0	2.5	2.5	2.5	2.5	2.0	2.5	2.0	1.5	2.5	2.5	2.5	2.5	10.	12.	11.	4.0
1.5	1.0	2.5	1.5	2.5	2.5	2.5	2.5	2.5	2.0	2.5	2.5	.00	2.5	2.5	.00	2.5	2.5	2.5	2.5	12.	13.	9.0	4.0
1.5	2.5	2.5	2.0	2.5	2.0	2.5	2.5	2.0	2.5	2.0	2.5	1.0	1.5	2.0	.00	2.5	2.5	2.5	2.5	13.	12.	10.	5.0
1.5	.50	2.5	1.0	2.5	1.5	2.5	2.5	1.0	.00	2.0	2.0	.00	.50	2.5	.00	2.5	2.0	2.5	1.0	9.0	14.	12.	3.0
1.5	2.5	2.5	1.0	2.5	.00	1.5	1.5	.00	2.0	2.5	2.5	2.0	2.0	.00	1.0	2.5	2.5	2.5	2.0	11.	13.	10.	4.0
2.0	2.5	2.0	1.5	2.5	2.5	2.0	2.5	2.5	2.0	2.5	2.5	.00	2.5	2.0	.00	2.5	2.5	2.5	2.0	13.	12.	13.	2.0
1.0	2.5	2.5	2.5	1.5	2.5	2.5	2.0	2.5	2.0	2.5	2.5	.00	1.0	2.5	.00	2.5	2.5	2.5	1.0	12.	13.	11.	5.0
1.5	2.5	2.5	2.5	2.0	2.5	2.5	2.5	2.5	2.5	2.5	2.5	2.0	2.5	2.5	2.5	2.5	2.0	2.5	2.0	13.	11.	8.0	5.0
1.5	2.5	2.5	1.5	2.5	2.5	2.5	2.5	.00	2.5	2.5	2.5	.00	2.0	2.0	2.0	2.5	2.0	2.5	1.0	13.	12.	13.	4.0
2.0	2.5	2.0	1.5	2.5	2.0	2.5	2.5	2.5	2.5	2.5	2.5	1.0	2.5	1.0	2.0	2.5	2.0	2.5	2.0	13.	11.	14.	3.0
1.0	2.5	2.0	1.5	1.0	.00	.00	1.0	2.0	2.0	2.0	2.5	2.0	2.0	2.0	.00	2.5	2.5	2.5	.00	12.	12.	12.	4.0

34) 부록 1과 2에서 사용된 약호는 다음과 같다. c(독해) 1~0(1번-20번 문장)/ e(표현) 1~4: 각각 가독성, 문장 적격성, 어문 규범 준수 여부, 어휘/ ct(독해 총점), et(표현 총점), tt(전체 총점). 그러므로 세로줄은 1번 학생부터 40번 학생까지 일련번호로 배열한 것이고, 세로줄은 각 학생이 항목별로 얻은 점수를 표시한 것이다. 각 학생의 총점은 다음 부록 2에 나와 있다.

[부록 2] 독해 총점과 표현 총점 및 전체 총점 일람표

CT	ET	TT
35.50	35.00	70.50
39.00	37.00	76.00
36.00	36.00	72.00
33.50	39.00	72.50
35.00	38.00	73.00
36.50	39.00	75.50
38.50	38.00	76.50
31.00	37.00	68.00
33.50	43.00	76.50
38.00	40.00	78.50
32.00	40.00	72.00
36.50	40.00	76.50
36.50	41.00	77.50
42.00	35.00	77.00
41.00	37.00	78.00
39.00	37.00	76.00
33.00	40.00	73.00
37.50	37.00	74.50
41.50	38.00	79.50
37.50	38.00	75.50
47.00	41.00	88.00
46.50	42.00	88.50
42.50	44.00	86.50
38.50	35.00	73.50
30.50	43.00	73.50
32.00	37.00	69.00
35.50	38.00	73.50
42.50	37.00	79.50
36.50	36.00	72.50
42.00	37.00	79.00
41.00	38.00	79.00
39.00	40.00	79.00
30.50	38.00	68.50
34.50	38.00	72.50
41.00	40.00	81.00
38.50	41.00	79.50
47.00	37.00	84.00
39.50	42.00	81.50
43.00	41.00	84.00
31.00	40.00	71.00

